



6·25전쟁 당시 '홍남 철수 작전'으로 피란민 10만여 명을 구한 고(故) 에드워드 H 포니 미 해군 대령의 사진이 담긴 노트북을 손자 네드 포니(오른쪽)씨와 증손자 벤 포니씨가 들고 있다. 포니 부자(父子)는 한국에 살면서 포니 대령과 홍남 철수 작전을 다룬 책을 쓰고 있다. /고운호 기자

포니씨를 만난 현 박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쏟아냈다. 그는 "당신 할아버지는 홍남 철수 작전 지도자 중 하나였고 통역관이었던 나와 매우 친했다"며 "부대를 정비하고 철수시키는 책임자였던 포니 대령은 큰 공을 세운 영웅"이라고 했다. 포니 대령은 전쟁이 끝난 뒤 1957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해병대 고문으로 근무했다. 베트남전쟁 참가 후 미국으로 돌아가 1965년 사망했다.